우암학원 창학 70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기업이 원하던 자리 지식산업센터
허드슨 1041 첨단2지구
분양중 062)372-6666 시공 삼일건설

대표전화 (062)222-8111 제21425호 1판 | 1952년 4월 20일 창사 69 |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 음력 12월 2일 | kwangju.co.kr

"호남 민심 잡아라" 여권 잠룡들 광주로… 전남으로…

뉴스초점 - '호남 대전' 조기 점화하나

정세균 총리 지역 언론 인터뷰 민심 접촉 늘려 … 코로나 조기 극복 노력

이재명 지사 29일 광주서 1박2일 … 윤상원 생가 방문·국회의원 간담회

이낙연 대표 설 전 방문 … 'MB·朴 사면론' 오해 풀고 힘 보태달라 당부

차기 대선을 노리는 여권 잠룡들이 잇달아 광주와 전남을 찾을 예정이어서 '호남 대전'이 조기에 점화될 전망이다. 다음달 설 명절을 앞두고 호남 민심에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면서 대선 가도에 유리한 고지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3면〉

그동안 정중동의 모습을 보였던 호남 민심이 설 명절을 전후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여권의 대선 구도가 요동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 따르면, 이 지사는 오는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이용섭 광주시장이 '인공지능 업무협약'을 맺기 위해 경기도청을 방문한데 대한 답방 성격이다. 이 지사는 이날 이 시장과 면담을 갖는데 이어 저녁에는 광주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윤상원 열사 생가 방문 등 광주·전남지역 민심과 접촉면을 확대할 수 있는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측에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20%대 박스권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호남 민심의 지지를 확고히 한다면 점차 대세론을 형성하지 않느냐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는 29일 광주를 방문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며 "그동안 지지해주고 있는 광주·전남 민심에 고마움도 전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뜻이 담긴 일정"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설 전에 광주와 전남을 잇달아 방문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 광주·전남 민심이 불편함을 보이는 것에 대해 오해를 푼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80년 5월 광주의 대동정신이 코로나 19라는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권에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이 대표 측은 설 전에 코로나 3차 확산 사태가 진정되고 다음 달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사회 전반에서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시화된다면 하락세를 보여왔던 지지율의 상승 계기가 마련되지 않느냐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정책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여권이 민심의 신뢰를 얻고 나아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이 대표의 대권 가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낙연 대표 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이개호 의원은 "이 대표가 설 명절 전, 두 세 차례 광주·전남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호남 민심과의 소통을 통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고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것이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잠룡으로 꼽히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사태 진정에 총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민심과의 소통에도 방점을 두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호남 민심의 지지가 차기 대권 도전으로 가는 디딤돌이기 때문이다. 정 총리 측에서는 연일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회의 등으로 지역 방문 일정 내기가 쉽지 않은 만큼 광주·전남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호남 민심과의 접촉면을 넓혀간다는 생각이다. 정 총리 측 관계자는 "광주·전남의 코로나19 사태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급격히 진정되는 등의 상황이 아니라면 정 총리의 광주·전남 방문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극복된다면 설을 앞두고 호남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차기 대선 도전을 선언한 전북 출신의 박용진 의원도 오는 20일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하고, 차기 잠룡으로 거론되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설 전에 광주와 전남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대법, 오늘 박근혜 형량 확정

4년 2개월 재판 마무리… 사면 논란 재점화할 듯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을 놓고 대법원이 오늘 결론을 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을 받았고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취지대로 진행된 만큼 재상고심에서도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유지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에 대해 상고도 하지 않아 대법원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한 검찰의 재상고 이유만 검토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형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29일 국정농단 사건, 11월 28일에는 특활비 상납 사건과 관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사건이 병합 심리됐다.

2010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시작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최씨와 공모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비 중 일부가 뇌물로 인정됐고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도 유죄로 판단됐다.

2심에서는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되면서 형량은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2심 선고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분리 선고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파기환송을 판결했다.

14일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국정농단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최순실의 태블릿 PC 공개 이후 4년 2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된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도 2018년 1월 기소 이후 3년 만에 끝을 맺는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특별사면 요건이 갖춰지는 만큼 이미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논의가 다시 본격화할 수도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5대 사면배제 대상인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사면론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법이란? - 8000원 무전취식자 구속 ▶6면
2021 새 설계 - 곡성군·영광군·함평군 ▶11~13면
신 팔도명물 - 경주 황남빵 ▶22면

졸업시즌인데 … 한산한 꽃시장 광주지역 각급 학교 졸업 시즌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졸업식이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화환 등에 사용되는 꽃 소비가 크게 감소했다. 13일 광주 서구 원예농협화훼공판장에 장미를 비롯한 갖가지 계절꽃이 많이 진열되어 있지만 방문객들이 뜸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코로나 탓에 또…광주비엔날레 4월 연기 검토

폐막일 기존 대로 5월9일 유지
일정 72일→39일로 축소 예정

코로나 19 여파로 지난해 9월에서 오는 2월로 개막이 미뤄졌던 제13회 광주비엔날레가 또다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16면〉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당초 2월 26일 개막 예정이었던 올해 행사를 오는 4월1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폐막일은 기존 대로 5월9일을 유지, 전체 행사 일정은 72일에서 39일로 축소될 예정이다. 최종 방침은 오는 16일께 열리는 광주비엔날레 이사회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재단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국제 행사를 표방하는 광주비엔날레가 좀 더 안정된 상황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행사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며 "일정이 축소돼 아쉬움은 있지만 전시와 포럼 등 모든 행사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그대로 진행,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재단은 주 전시장인 비엔날레전시관 공간 구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 작가들의 출품 작품도 최근 선박편 등을 통해 속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나타샤 진발라와 데프네 아야스 공동예술감독도 조만간 입국해 2주 자가 격리 기간을 거친 후 작품 설치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광주·전남에서 열리는 또 다른 국제 행사는 예정대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 2일 비엔날레전시관에서 개막하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9월1일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시작하는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일정이 아직 9개월여 남은 만큼 코로나 19상황을 지켜보며 전시를 준비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2weeks
고함량 고강도 레티놀이 눈가 및 팔자 주름 등을 단 2주*만에 개선
IOPE LAB
슈 퍼 레 티 놀
단 2주 만에 주름 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들,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만 40~59세 성인 여성 대상 2019.09.16~10.17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